

사료업계의 현황과 전망

대담자/원동택(대한 사료 부장)
조홍래(사료협회기획부장)
(무 순)

소맥분 가격 현실화로 소맥피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 같다.

■ 75년도 현황 및 전망은? (원료수급, 가격, 종류별 생산량) ■



원동택부장
(대한사료부장)

금년도의 사료업계에는 희비 쌍곡선이 엇갈리는 여러가지 진풍경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에너지파동의 여파로 파생된 곡류파동이란 전제하에 물량확보라는 대명제는 시장정보에 어두워 유례없는 고가에 일시적 국내도착이란 다량의 옥수수 도입되어 자금동원 및 저장에 부심 하였으며, 두차페의 가격 인상과 한차페의 가격 인하는 판매 및 소비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로인한 부원료 주로 단백질(어분 및 박류) 원료는 사료적 가치로 보아 저렴하였고 양적 및 질적으로 풍부하였으며 우수하였습니다. 강피류도 별 파동없이 무난히 안정하게 공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대비 양계용 옥수수 및 육계용 사료와 낙농사료의 양적 증산은 내년도에 결코 금년과 같이 안정하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돼지사료는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년도의 호경기로 사육두수가 다두화되어 정부의 단미공급과 자가배합비율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도 후반기 부터 증가 되어 연말 통계로서는 모든 가격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으리라 믿으며 그러

므로 사료는 약간 딸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단백질사료 원료인 어분가격은 계속 가격 앙등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박류 시세도 상승세입니다. 연쇄적으로 금년도 옥수수 노이로제는 후반기에 부족현상도 야기되었으나 이는 수송관계로 인하여 우발적인 발생이었고 내년도 구입 총 물량과 가축증가수와와의 차이에 따라 과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소맥분 가격현실화로 인한 소비위축은 필연적으로 소맥피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 배합사료 유통상의 문제점 및 방안은? ■

에너지 파동 이래 소비위축은 바로 유통질서 체계가 형성되더니 일시적인 옥수수 과다 도입과 자금부족으로 인한 연불구입 및 신규공장의 증가 등의 이유로 외상거래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다행히 금년은 축산물 가격이 예년에 없는 호경기를 이루어 수의 증가와 자금의 감소(축산에서 타차로 투자가 생기는 현상)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기일도래로 인한 부채 상황과 연불의 지속이 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공산이 큼니다. 아울러 生産物價格의 高價지속이 어느程度 유지할런지 수요와 공급 원칙을 준수하여 질서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일상품명의 가격차가 2~5원 정도는 이해할수 있으나 10원 이상의 차이는 도저히 이해 하기 어렵고 또한 유통되다니 어떤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 사료공장이나 사육자나 나만의 생각을 버리고 서로 믿고 공정거래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품질 향상 문제는? ■

명량한 유통과정, 적정한 가격유지, 적당한

이윤이 없는한 품질향상이란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고시가격하에서 오래 경험한 사육자 뇌리에는 품질보다 가격이 앞서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수준에서 맴돌지 않을런지요?

■ 사료 자급화의 가능성은? ■

지금의 농업구조와 축산경영형태의 변화 없이는 사료의 자급화는 불가능한것으로 봅니다. 단계적으로 몇 %씩을 설정 조급하게 굴지말고 서서히 유도 하는것이 좋으며. 아무리 좋은 원료 일지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이윤이 나지 않으면 외면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축은 경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 사료검사에 대한 문제점은? ■

제재의 파다는 지킬 수 없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 같은 축산업 종사자 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은? ■

- 1) 수요와 공급에 민감합시다.
- 2) 나만의 이윤을 지향합시다.
- 3) 과도한 투자를 억제합시다.
- 4) 자본과 능력을 고려합시다.
- 5) 외부의 자본을 흡수합시다.
- 6) 축산업에 종사함에 긍지를 가집시다.

명년도 100만톤정도 배합사료 생산은 무난할듯

■ 75년도 사료업계의 현황은 어떠했는지요? ■

1975년도 주요원료수급계획을 보면 사료용 옥수수 40만톤, 대두박 3만톤, 계 43만톤을 도입하고 민수용소맥피 36만톤(소맥 180만톤 해당량)을 생산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세계적인 인플레이의 영향으로 1974년도에는 축산물 시세가 하락한 결과 가축사육수의 급격한 감소등으



조 흥 래 부장
<사협회장>

로 사료수요량이 격감되어 옥수수 38만톤, 대두박 1.6만톤을 도입하였고 민수소맥피 27만톤(소맥 135만톤 해당)이 생산공급되었으나 수요 감소로 사료수급상에는 아무 차질이 없이 원활하게 공급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배합사료생산량을 보면 당초 100만톤을 생산 예상하였으나 1~10월까지의 종류별 생산량을 보면 양계용사료중 육추용사료 90,490톤(전년동기 75,180%), 성계용사료 293,391%(전년동기 312,271%), 육계용사료총생산량은 77,490%(전년동기 67,706%)으로서 양계용사료가 1%감소하였으며 이밖에 양돈사료 110,630%(전년동기 158,613%), 낙농용사료 123,041%(전년동기 95,290%), 비육우용사료 27,940%(전년동기 35,237%)으로서 총배합사료생산량은 전년동기 758,636%생산에 비하여 35,254%이 감소한 723,382%으로서 전년동기간 대비 4.6%가 감소하였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양돈용사료가 30.2%, 비육우용사료가 20.7% 그리고 농축사료등 기타사료가 23.1% 각각 감소하고 낙농용사료만이 29.1%가 증가하였을 뿐이며 따라서 10월중 배합사료생산량을 기준하여 11월과 12월의 배합사료생산량을 추계한다면 1975년도 배합사료 농축생산량은 89.5~90만톤 범위내에서 생산되리라 기대되나 이와같은 물량은 1973년도 909,620%, 1974년도 927,170%에 비하여 약간 감소되었으며, 1967년도 이후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던 배합사료생산량이 처음으로 전년도 수준을 하회했습니다. 배합사료 및 조절용사료가격의 변동상황을 들어 보면 특히 배합사료는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1974.12.7 일환율인상조치로 1월초에 약 15%의 가격인상이 있었고 지난해 미국에 있어서의 대홍작으로 곡물의 국제시세가 상승하여 1975년

◆신년특집대담◆

도 상반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던 옥수수가격의 앙등으로 3월하순에 다시 15%정도의 가격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료의 세계적인 수요감퇴와 미국 이외의 여러국가의 작황이 호전되어 국제곡물시세가 서서히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9월하순 부터 사용하게될 옥수수 구매가격의 하락으로 양계사료의 경우 약 9%수준의 원가하락요인을 가져와 처음으로 배합사료가 격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수용소맥피나 정부관리양곡부산물가격을 9/23-24일을 기하여 일제히 60%~130%를 인상조치하였기 때문에 강류사료의 배합 비율이 높은 양돈 및 축우용 배합사료는 가격인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품목은 약간의 원가상승요인이 야기된 실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1976년도의 전망을 살펴본다면 배합사료생산량의 경우 1975년도 보다도 약 10만톤수준까지 배합사료생산량이 증가될 추세에 있다고 보아지는 바 1975년도에는 낙농용 배합사료만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고 기타 모든사료가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1976년도에는 모든사료가 전반적으로 증가되리라 기대된다. 그리고 사료곡물도입량도 정부가 48만톤으로 책정하였다함으로 이 정도의 곡류사료가 확보된다면 100만톤 정도의 배합사료 생산은 무난하리라 본다. 이밖에 대두박을 비롯한 단백질사료용 당밀 및 우지등 4.3만톤을 적기 공급할 예정이며, 민수용 소맥피도 밀가루가격이 자유화된다 하여도 75년도 수준인 135만톤 정도는 제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여기서 한가지 제도의 변경을 갖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소맥피 판매가격을 자유화하여 시장의 자율기능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형성되도록 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며,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개선은 우리가 항상 기대하여 왔던 만큼 이와같은 가격현실화가 배합사료가격을 어느정도 자극한다 하여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 세계적인 사료곡물 현황과 추세는? ■

오늘날 세계 모든나라들은 곡물생산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서 생산량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세계최대의 곡물생산국가인 미국이 평년작보다 20%가 감소한 대흉작을 보이더니 금년도에는 소련이 한발로 1972년에 이어 두번째로 대흉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소련의 한발현상은 3~5년주기로 반복되어 국제곡물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1975년도에는 미국이 대흉작을 이루어 사료곡물(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생산량은 75.11/1 현재 185.2백만톤으로 예상하며 전년도 대비 23.6%가 증가되고 소비역시 14.4%가 증가예상되나 다음해로 이월될 물량이 전년대비 50%가 증가될 추세에 있고 수출여력도 지난해 보다 27%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밖에 소련은 당초생산계획량 215.0백만톤보다 55백만톤이 감소한 160백만톤이 생산될 전망이다이라는 외지보도까지 있는 바 소련은 이와같은 부족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7월에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등지로 부터 1,000여만톤의 곡물을 구매하였고 아울러 미국과의 장기구매협정에 의한 원유와 곡물의 바터교역을 추진하여 결실을 보아 매년 700만톤 상당의 곡물을 안정성있게 구매할 계획이며 일본에서도 지난 8월에 미일농상회담을 통하여 향후 3년간 연간 1,300만톤의 곡물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이밖에 폴랜드나 인도등도 미국과의 장기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이 모든 나라들이 안정성있는 곡물확보 및 비축계획을 서두르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와같은 추세를 감안하여 양곡 및 사료곡물구매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성있게 필요한 물량을 적기확보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따라서 72년이래 계속 되어오던 세계적인 곡물파동은 3년간의 뾰박기를 지내고 이제부터는 안도의 완화기로 접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나 금후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축산물수요 및 금년 봄의 남반구 작황에 커다란 변동이 없는

한 가격전망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 봅니다.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선물거래가격을 기준한 옥수수 가격의 한국도착가격은 1974년 11월에는 최고 \$195 수준까지 앙등하였다가 서서히 하락하여 6~7월에는 \$120대이고, 8/13현재 \$194, 9/11현재 \$137, 11/3이후 \$130이나 \$121 수준으로 가격이 안정된 추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형성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측을 불허하나 많은 경제 전문가의 견해를 빌린다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상승할 것인가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수준까지 하락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가우는 것 같다고 합니다.

■ 주요원료의 수급계획과 가격 전망은? ■

1976년도 주요원료의 수급계획을 보면 배합사료생산에 상당 100만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료곡물 48만톤, 단백질사료 및 기타부원료 4.3만톤, 계 523천톤을 적기에 도입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76년도 부터는 소맥분의 보상제도를 철폐하고 소맥분가격을 자유화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분식장려를 감행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소맥분가격을 자유화한다면 소맥피 생산량은 현년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하리라 기대되며 1975년도에 구매한 사료곡물중 약 8만톤이 1976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2월말까지 사용가능하리라 보며 3~4월에 소요되는 물량 8만톤을 12/23일에 구매입찰 예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옥수수의 국제시세를 기준하면 톤당 \$130 수준 이하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료곡물의 수입가격은 명년 3~4월까지의 안정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나 5~6월의 사료곡물구매단가는 내년봄의 남반구의 추곡작황과 미국 곡창지대의 옥수수 파종을 좌우할 강우량등 기상조건에 따라 변동될 것이므로 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상승할 것인가 하는 것은 5월부터의 기상조건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두박등 단백질사료시세는 페루의 어획전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며 페루에서는 1972년도에 이어 3~5년주

기로 수은(水溫)이 상승하는 “엘니뇨”현상이 다시 야기되어 1975.10상순까지 어획기간을 연장하는 등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페루의 어획감소는 곧 그 영향이 세계곡물시장으로 파급되어 유실류와 단백질사료 가격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 금년도에는 미국의 대두박시세를 크게 자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두시세가 안정된다면 대두박시세(동방유량산)도 계속 보합세를 이루리라 봅니다. 이밖의 주요원료라고 볼 수 있는 소맥피의 가격현실화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시중시세가 포장당(36kg드리) 1,800원수준 이하에서 보합세를 이루게 되지만 제분공장도 가격은 1,260~1,440원 범위내에서 판매되리라 보아집니다. 만약에 가격이 현실화된다면 강류사료는 수요의 분산으로 수급의 원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배합사료가격의 일시적인 원가상승요인은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배합사료 유통상의 문제점 및 개선책은? ■

현재 배합사료의 유통경로를 보면 첫째, 전량을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체 둘째, 일부는 대리점 일부는 실수요자와 직거래하는 경우 셋째, 전량을 실수요자에게 직판하는 경우 넷째, 전량을 자가사료로 충당하는 네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유형에 의하면 외국합자투자업체에서 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많고 규모가 적을수록 직거래 또는 자가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5년도에는 상반기때 일시에 많은 옥수수를 구매하여 재고량이 포화상태인데다 옥수수대전절제기일의 도래등 자금압박과 사료수요량감소로 인한 생산부진과 가동율저하, 심한 판매경쟁에 의한 거래조건의 우대조치강구등으로 크게 고전을 하였으며 경쟁면에 불신을 초래하였던 시련의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는 축산물가격이 유리하게 형성되어 특특히 재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료대전절제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는 것이 현실이었으나 양계가가 사는것은 축산물의 적정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생산조절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닥아올지도 모르는 불황에 대비하여 규모의 무리한 확대는 피해야 할 것이고 항상 우리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만성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외상 거래조장에 의한 확장등 불합리한 요소는 배제되고 사료구매에 있어서는 사료비의 절감을 위하여 현금 구매방향으로 전환되길 바라며 또한 대리점을 통하는 것 보다는 직거래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가 만약에 부과되기 시작한다면 대리점을 통한 사료판매는 더욱 세무면에서도 다루기 어려워 질 것이고 정상적인 세무처리를 이루려면 사료구입비가 그만큼 상승하게 될 것이며 사료판매시 표준계산서발급의 정확을 위해서나 사료구입비 절감을 위하여도 거래면에서 체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리라 봅니다.

■ 사료의 품질향상문제는? ■

사료에 있어서의 생명은 그 사료가 지니고 있는 사료효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료의 효율을 말하는 사료의 품질은 가격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중요한 사료의 품질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동되고 있습니다. 첫째, 원료의 수급사정 둘째, 원료가격 셋째, 사료수준의 요구도 넷째, 가격정책여하에 따라 품질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사료의 품질을 높이려면 반드시 가격의 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단 가격의 상한선이 결정되면 사료의 품질은 어느수준 이상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가격이 자유화되었을 경우 사료의 품질관리가 현행 일반조성분의 검사제도에서 Amino산 에너지수준 Ca. P등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러나 이와같은 품질관리는 시행상 문제점이 적지 않으므로 단시일내의 시행은 어렵겠지만 계속 연구 검토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축가가 사료를 구입한다는 것은 축산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료가격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사료를 구입함으로써 최소한으로 비용을 줄여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효율사료 즉 경제적사료를 찾는 데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사료메이커는 거래하는 고객의 사업이 충실히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품질이 우수한 배합사료를 생산하는데 주력하여 양축가의 사료구입비 절감에 기여함은 물론 사료효율제고에 의한 사료수요량의 절감을 기하여야 합니다. 저효율사료는 사료의 낭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단위당 축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량을 증가시키므로 결과적으로는 부족사료의 규모를 늘리고 외화를 낭비하는 모순이 따르게 됩니다.

■ 사료자급화의 가능성은? ■

1975년도에는 사료의 자급화제고를 기하기 위하여, 녹사료생산 5만톤, 저장사료생산 25만톤, 분말고구마생산 1.5만톤, 볏짚발효사료 5천톤, 담리작사료작물재배 15.9천정보, 초지 조성 4.5천정보를 증산 또는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성과면에서는 당초계획보다 약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하튼 국내 부존자원은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사료의 수입 의존도를 절감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산사료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불량면에서나 품질 및 원가구성면에서 적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자급사료를 증산하기 위하여는 국내생산사료원료에 대한 가격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내생산자원은 우선 생산지농가의 자급화유도로 중간조작비를 절감하여 축산물생산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하나 이들 상품화시켜 배합사료원료화하고자 할 때에는 타사료와의 적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공급가격이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평준화방안은 에너지사료는 옥수수가격을 기준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고 단백질사료는 어분이나 대두박가격을, 그리고 녹사료나 해조분등은 강류사료(소맥피)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가격을 책정하되 구매가격과 공급가격사이에 격차가 있을 때에는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료검사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

우리나라의 사료검사제도를 보면 행정공무원이 사료검사원이 되어 시료채취와 장부검사

◇사료업계의 75년도 현황과 76년도전망◇

를 실시하고 축산시험장이 사료검사를 위한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결과에 따라 위배사료에 대하여는 농수산부 또는 시, 도지사가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를 축산잡지에 매월공포하고 있으며, 벌칙을 보면 주로 행정조치로서 경고, 3~6개월간 해당사료의 제조정지, 성분등록취소 및 배합사료공장의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벌이 가해지고 있으며 벌금형과 금고형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료검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성분량한도는 배합사료의 경우 일반조성분이 검사대상이 되고 있으나 검사시설이나 기술적면에서 가소화성분이나 미량성분의 검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성분이 검사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인근 일본에서도 배합사료의 공정규격을 보면 일반 조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사료검사제도를 보면 일본 같은 곳에서는 정부기관인 비사료검사소가 담당하고 캐나다등에서는 사료검사제도가 없으며 서독등에서는 사료협회가 담당하고 미국에서는 주마다 검사방법이 다르나 대략 일반조성분을 주정부(생산직 주 정부 그리고 유통되는 주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는 수년전까지는 배합사료 포장지에 배합한 원료명과 배합율까지 표시하는 방법을 채택한 예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배합한 원료명만을 표시하고 있는곳이 많으며, 따라서 배합사료검사는 육안검사가 아니고 성분분석을 거쳐야 됴므로 검사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검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후조치가 뒤따르게되며 일단 위배사료로 판명될 때에는 전량 가축에게 급여한 후이기 때문에 사후벌칙부과는 어느정도의 자체 모순을 가지게되는 결점이었다. 그리고 사료검사가 일반조성분검사이므로 그 사료의 가치를 완전히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축가 여러분은 너무 지나치게 사료검사결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검사결과와 직접 사양결과를 토대로 사료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는 행정처벌을 강행하기 보다는 이와 같은 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제재방향을 바꾸므로써 한편으로는 배합사

료 생산을 자극하여 수급원활과 품질을 보장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료공장에 바라고 싶은 사항 ■

우리나라 배합사료공장의 대부분이 규모가 비교적 적고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축산물의 계획적인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기업합병 등 방법을 도입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계열화를 이루어 축산 및 사료생산과 유통이 직결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사료면에 있어서는 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경제적사료를 생산 공급하고 고객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축가가 수지맞는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 양축가에게 바라고 싶은 사항 ■

양축가 여러분은 사료를 구입하실 때 너무나 사료단가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사료의 생명은 효율에 있고 효율높은 경제적사료만이 여러분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료를 구입하실때에는 그사료가 왜 단가가 싸고 비싼가를 살피신 다음에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양축가를 위한 계획은 ■

첫째로, 적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며 배합사료를 원활히 공급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효율사료 생산을 위하여 계속 제도적 보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사료수입의 다변화와 이용도제고를 위한 관세율의 균일성 있는 부과를 이루도록 제도개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축산업의 불경기에 대비하여 축산물의 합리적 소비촉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산식품의 가치인식과 합리적보급을 이루고자합니다.

다섯째, 기술 및 경영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여 양축기술의 보급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새로운 국내외의 사료 및 축산정보를 신속하게 알리어 격변하는 정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자료를 제시할 계획입니다.